

수산생물전염병의 현장 대응력 높인다

- 3. 26.~3. 27., 해수부·수품원·지방정부 합동 수산생물전염병 도상훈련 실시

해양수산부는 수산생물전염병에 대한 방역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 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정부와 함께 3월 26일(목)부터 27일(금)까지 대전에서 '2026년 수산생물전염병 도상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온 상승 등 환경 변화로 수산생물의 전염병 발생 양상이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 체계 마련과 현장 실무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실제 상황에 준하는 훈련을 지속 실시해오고 있다.

3회째를 맞은 이번 훈련에서는 기관별 임무와 역할, 위기 단계별 조치 절차 숙지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전염병 발생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합동 도상훈련을 진행하여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도상훈련은 전파력이 강한 1종 법정 전염병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 훈련으로 실전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온 결과, 2023년 이후 1종 수산생물전염병이 다른 시·군·구로 확산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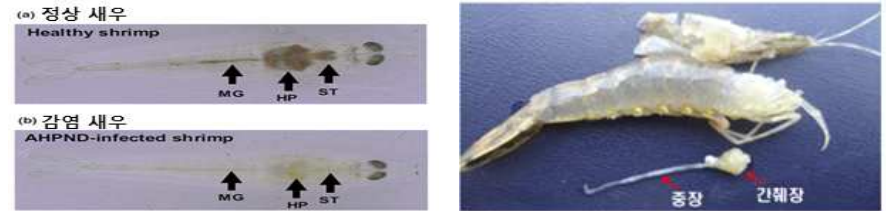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초기 대응 역량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정기적인 도상훈련을 통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총괄 부서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기원 (051-773-5610)
	어촌양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혜림 (051-773-5625)
담당 부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책임자	과 장	권문경 (051-400-5670)
	수산방역과	담당자	연구관	김상조 (051-400-5675)

참고 살처분 대상 제1종 법정전염병 현황

□ 급성간췌장괴사병(Acute HematoPancretic Necrosis Disease, AHPND)

- (원인) 비브리오균(*Vibrio parahaemolyticus*) 중 독소 생성 관련 유전자 (Pir A, Pir B)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균주
- (폐사율) 발병 시 10일, 늦어도 30~35일 이내 100%에 이르기도 함
- (현황) '16년 최초 발생, 이후 양식장에서 발생
 - * (발생추이) '16(9건, 최초 발생), '17(1건), '18(1건), '21(2건), '23(15건), '24(4건), '25(3건)



<AHPND에 감염된 새우의 임상 증상>

□ 잉어봄바이러스병(Spring Viraemia of Carp, SVC)

- (원인) 람도바이러스속에 속하는 잉어봄바이러스(Spring viraemia of carp virus, SVC)로 11~17℃의 봄철에 주로 발생
 - * 10℃ 이하 또는 22℃ 이상에서는 질병 발생률이 낮음
- (폐사율) 발병 시 2~3주내 40~70%
- (현황) '90년대 최초 발생, 이후 양식장, 자연계에서 발생
 - * (발생추이) '16(1건/자연수계), '20(1건/자연수계), '22(1건/양식시설), '23(1건/양식시설), '24~'25(0건)



SVC에 감염된 잉어(체표 출혈) 및 이스라엘 잉어(복부팽만 및 아가미 기저부 출혈)
<출처: HJ Schlotfeldt>